

運氣學說의 贊反論爭에 관한 歷史的 考察

I. 緒論	43
II. 本論	43
1. 運氣學說에 대한 긍정적 견해	43
1) 醫籍 中の 至實로 보고 推崇해야 한다는 경우 ...	44
2) 기계적인 활용을 주장하는 경우	44
3) 기계적인 활용을 반대하는 경우	45
2. 運氣學說에 대한 中道的 견해	51
3. 運氣學說에 대한 부정적 견해	55
III. 結論	59
參考文獻	60

運氣學說의 贊反論爭에 관한 歷史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晶圭 金善鎬 尹暢烈

I. 緒論

運氣學說은 歷代의 醫書에 많이 언급되어 東洋醫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시작은 王冰이 《素問》에 運氣七篇을 첨가한 것 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宋代의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를 지었는데 이는 後代에 運氣學說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藍本의 역할을 할 정도로 運氣學說에 대해서 系統적으로 연구를 한 최초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 이후 많은 醫家들은 運氣學說을 중요시하여 많은 연구와 임상에의 응용을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運氣學說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꼭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馬蒔, 李梴, 程德齊, 熊宗立, 沈括, 汪機, 虞搏, 張介賓과 같이 運氣學說을 긍정한 경우와 黃承昊, 馮兆張, 徐大椿, 王履와 같이 運氣에 대해서 中道의인 견해를 가진 경우, 繆希雍, 張飛疇, 陸彭年, 陳無咎 등과 같이 運氣學說을 부정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따라서 본 論考에서는 이 문제를 運氣學說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경우, 運氣學說에 대하여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運氣學說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경우로 나누어 諸家의 원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運氣學說에 대한 긍정적 견해

비록 運氣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은 馬蒔, 李梴 등처럼 醫籍중의 至寶로 追崇하는 사람이 있고, 두번째로는 활용에 있어 程德齊의 《傷寒鈐法》, 熊宗立의 《素問運氣圖括定局立成》처럼 某年生은 某經에 병이 들고 某藥을 써야 낫는다고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번째로는 沈括(字存中)이나 張介賓 등처럼 막중한 변화를 잘 헤아려서 수시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등으로 나뉘어 진다.

1) 醫籍 중의 至寶로 보고 推崇해야 한다

1)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209.

는 경우

馬蒔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중 “五運六氣略論”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自此篇(《素問·天元紀大論》)으로 及后《五運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刺法論》, 《本病論》, 《至真要大論》, 諸篇은 皆論五運六氣 南北政이라 凡天時 民病 人事等義 | 至詳至備하니 爲醫籍中至寶이라 其《刺法》, 《本病》二篇은 則遺亡矣라 學者 | 熟究하여 明其大義면 則每年每月氣候 病證 治法이 無有不應이리라.”(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五運六氣略論)²⁾

上文은 素問의 運氣七篇은 그 내용이 五運六氣, 南北政 등을 논하여 天時, 民病, 人事 등의 뜻을 자세히 갖추고 있으니 “醫籍中至寶”로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李梴은 그의 著書인 《醫學入門》의 “運氣總論”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經曰 必先歲氣 勿伐天和라하고 又曰 不知年之所加 氣之盛衰 不可以爲工이라하니 學者 | 合而觀之하고 更精於脈證하면 乃自得之意리라 儒之道는 博約而已矣이오 醫之道는 運氣而已矣라 學者 | 可不由此入門 而求其蘊奧耶아”(李梴, 《醫學入門》, 運氣總論)³⁾

上文은 “必先歲氣 勿伐天和”와 “不知年之所加 氣之盛衰 不可以爲工”이라는 《內經》의 原文을 인용하여 선비들의 道는 博約이라면 醫

學者들의 道는 運氣일 따름이라고 하여 運氣學說을 醫師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기계적인 활용을 주장하는 경우

運氣學說의 기계적인 활용을 주장하는 사람과 서적은 程德齊가 지은 《傷寒鈐法》과 熊宗立의 《素問運氣圖括定局立成》이 대표적이다.

運氣를 追崇하는 사람중에 몇몇 醫家들은 程氏의 《傷寒鈐法》을 內經運氣로 부터 전해진 것으로 여겼으며, 심지어는 《黃帝內經》의 뒤 에 덧붙여 板刻發行하여 昏亂을 초래하였는데 薛己나 熊宗立 등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薛己는 그의 著作인 《薛氏醫案》에서 《傷寒鈐法》을 全文 수록하고 한마디의 비판이나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熊宗立은 《素問運氣圖括定局立成》을 찬하여 黃帝內經素問靈樞의 뒤에 덧붙였다. 이 책 중에 馬宗素와 程德齊의 “識證歸鈐認字號用藥法”을 그대로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더욱 간략화시켜 “五運逐年主氣定局”, “六氣逐年主氣定局”, “傷寒汗瘥定局”, “傷寒運氣棺墓定局”, “逐日司天得病歸證定局”, “客氣加臨病症補瀉定局” 등등 固定的인 方式을 세웠다. 이러한 방식은 《傷寒鈐法》과 비교하면 더욱 정형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傷寒汗瘥定局立成”중에서 말한 것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모두 十二人의 瘥日이 있으나 생략한다.)⁴⁾

그리고 用法說明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 885.

3)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78. p. 64.

“右局立成은 不用輪推라 假如子命人은 不拘

得病日干	子命病人 汗瘥日	丑命病人 汗瘥日	寅命病人 汗瘥日
甲	乙庚	乙己	乙己
乙	乙庚	丁辛	丙辛
丙	乙丁	乙庚	丙戊
丁	乙丁	丁壬	乙己
戊	乙戊	乙丁	甲己
己	乙戊	己己	乙庚
庚	丙己	乙戊	丙己
辛	丙己	丙庚	乙丁
壬	乙己	丙己	丙己
癸	乙己	丙戊	乙戊

男女하고 但是甲日得病 則逢乙日 庚日 或第七日
에 瘥라 又如丑命病人이 己日得病 則乙日 己日
에 當有汗得瘥라 餘仿此라”⁵⁾

여기에서 “不用輪推”는 《傷寒鈐法》에서 기
술한 輪推方法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다만 熊氏
가 세운 定局하나로 立成한다는 것이다. 이는
診病, 用藥, 豫候판 단의 方面에서 《鈐法》과
비교하여 더욱 기계적인 것이다. “傷寒識證歸鈐
認字號用藥定局” 및 “運氣精微指訣主病行流定局”
중에서 《傷寒論》六經病을 각각 本命과 得病日
에 의하여 서로 다른 字號에 歸納시켰으며, “逐
日司天得病歸證局”에서는 어느 해에 태어난 사
람이 어느 날에 病이 들면 病은 어떤 經絡에 있
다는 것을 기술하였고, 다시 “識證歸鈐認字號用
藥定局”중에서는 方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다
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甲子年生이라면 그 사람은 ‘子
命’이다. 만약 그 사람이 甲子일에 病을 얻었다
면 ‘逐日司天得病歸證定局’에 따라 그 사람의 病

은 ‘太陽病’이 되고, ‘歸鈐認字號用藥定局’에서 太
陽病日 ‘子命’項을 찾고, 다시 得病日의 日干과
日支를 찾는다. 日支項에서 ‘震’字號를 얻고, 日
干에서 甲을 얻었으니 그 病은 震字號內의 第一
證(甲)의 藥을 써야 한다”. 이는 즉 《傷寒鈐法
》에서 정한 ‘下太陽震字號第一證의 處方인데,
살펴보면 大陷胸丸이다. 무릇 子命人이 甲子日
에 病을 얻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病證이 무엇
이든 간에 大陷胸丸으로 主之한다는 것이다⁶⁾.

3) 기계적인 활용을 반대하는 경우

運氣學說을 臨床에 응용함에 기계적이고 획
일적인 적용을 반대하고 그 때에 따라 적절한
응용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醫家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과 著書로는 宋代 沈括의 《夢
溪筆談》, 明代 虞搏의 《醫學正傳》, 樓英의 《
醫學綱目》중 運氣占候 및 內經運氣類注篇, 汪
機의 《運氣易覽》, 張三錫의 《醫學六要·運氣
略》, 李梴의 《醫學入門·運氣總論》, 聶尚恒의
《醫學匯函·運氣》, 張景岳의 《類經運氣類》
및 《類經圖翼》 등과 清代 吳謙의 《運氣要訣
》, 陸懋修의 《內經運氣病釋》 및 《內經運氣
表》 등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⁷⁾.

그중에 중요한 몇 사람의 논술을 아래에 예를
들어 보겠다.

沈括은 《夢溪筆談·卷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醫家有五運六氣之術하니 大則候天地之變 寒
暑風雨 水旱螟蝗이 率皆有法이오 小則人之衆疾
도 亦隨氣運盛衰라 今人不知所用 而膠于定法하

5) 王琦, 上揭書, p. 263.

4) 王琦, 運氣學說의 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p. 262.

5) 王琦, 上揭書, p. 263.

6) 王琦, 上揭書, pp. 263 - 264.

니 故其術이 皆不驗이라 假令厥陰用事엔 其氣多風하니 民病濕泄이라 豈溥天之下 | 皆多風하야 溥天之民이 皆病濕泄耶아 至于一邑之間 而陽雨 | 有不同者하니 此氣運은 安在오 欲無不謬나 不可得也라 大凡物理은 有常有變하니 運氣所主者는 常也라 異夫所主者는 皆變也라 常則如本氣오 變則無所不至 而各有所占이니 故其候有從 逆 淫 鬱 勝 復 太過 不及之變하야 其發이 皆不同이라 若厥陰用事에 多風而草木榮茂면 是謂之從이오 天氣明潔하야 燥而無風을 此之爲逆이오 太虛埃昏하야 流水不氷을 此之爲淫이오 大風折木 雲物濁搖를 此之謂鬱이오 山澤焦枯 草木凋落을 此之謂勝이오 大暑燔燎 螟蝗爲災를 此之謂復이오 山崩地震 埃昏時作을 此之謂太過오 陰森無時 重雲晝昏을 此之謂不足이니 隨其所變하야 疾病 | 應之라 皆視當時當處之候라 雖數里之間이라 도 但氣候不同 而所應全異하니 豈可膠于一定이 리오 熙寧中에 京師 | 久旱이어늘 祈禱備至하니 連日重陰이라 人謂必雨라하야늘 一日驟晴하야 炎日赫然이라 予時因事入對어늘 上問雨期하시 니라 予對曰 雨候已見하니 期在明日이니이다하 니 衆以謂頻日晦溥이나 尙且不雨어늘 如此陽燥에 豈復有望이리오하니라 次日果大雨하니 是時 濕土用事러라 連日陰者는 從氣已效나 但爲厥陰 所勝이라 未能成雨라가 后日驟晴者는 燥金入候라 厥陰當折 則太陰得伸하니 明日運氣 | 皆順 以是知其必雨라 此亦當處所占也라 若他處候別 이면 所占亦異니 其造微之妙는 間不容發라 推此 而求면 自臻至理하리라(沈括 夢溪筆談 卷七)⁸⁾

이 原文의 내용은 運氣學說은 常法과 變法의 關係를 잘 이해하여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벗어나야지만 제대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運氣學說에

8)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 10-11.

는 틀린점이 없으며 그것을 臨床에 잘 응용하고 못하고는 전적으로 醫師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宋代는 運氣理論의 연구가 시작된 시기이고 沈括도 그러한 풍조에 일조를 한 사람이다. 上文에서 이르기를 “醫家有五運六氣之術하니 大則 候天地之變하야 寒暑風雨와 水旱螟蝗이 率皆有 法이오 小則人之衆疾도 亦隨氣運盛衰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기를 五運六氣는 醫家之術이라고 하였다. 沈括의 智識으로 運氣의 다른 과학적 내용을 지적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현재 運氣의 유래를 토론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상당한 참고의의를 가진다. 또 “人之衆疾”이 “隨氣運盛衰”라면 天地自然의 寒暑風雨之變을 豫測하는 것은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는 法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五運六氣가 醫學의 正宗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⁹⁾.

運氣學說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 沈括은 자신의 관점을 提示하였는데, 상문의 “大凡物理에 有常有變하니 運氣所主者는 常也오 異夫所主者는 皆變也라 常則如本氣오 變則無所不至 而各有所占이라 故其候有從 逆 淫 鬱 勝 復 太過 不足之變 其發皆不同이라”라고 한 것과, 계속해서 厥陰用事를 예로 들어 기후변화 상황을 이용하여 氣運의 從逆淫鬱勝復太過不足을 인식하는 방법을 밝힌, “若厥陰用事엔 多風而草木榮茂하니 是之謂從이라 天氣明潔엔 燥而無風하니 此之謂逆이라 太虛埃昏 流水不氷은 此之謂淫이라 大風折木 雲物濁搖는 此之謂鬱이라 山澤焦枯 草木凋落은 此之謂勝이라 太暑燔燎 螟蝗爲災은 此之謂復이라 山崩地震 埃昏時作은 此之謂太過라 陰森無時 重雲晝昏은 此之謂不足이라”라고 한 논술이 氣運의 이러한 異常變化는 모두 人體에 影響을 미쳐 病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鬱其所變 疾病應之”라

9) 王琦, 上揭書, p. 230.

고 한 것이다. 따라서 醫生이 診病하고 處方하는데는 모름지기 “皆視當時當處之候니 雖數理之間이나 但氣候不同 而所應全異니 豈可膠于一定 이리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沈括은 당시 그곳의 기후와 氣象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運氣의 이치를 운용하는 원칙을 제기하였고, 氣運의 형식만을 고집하는 잘못된 방법을 비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자신이 運氣를 운용한 實例로서 運氣이론의 객관성을 증명하였는데, “熙寧中에 京師久旱하야 祈禱備至라 連日重陰하니 人謂必雨라하야늘 一日驟晴 炎日赫然이라 予時有事入對어늘 上問雨期시니라 予對曰 雨候已見이니 期在明日이니이다 一次日 果大雨라”라고 하였다. 沈括은 계속해서 자신이 雨期라고 판단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는데, “是時濕土用事니 連日陰者는 從氣已效라 但爲厥陰所折하야 未能成雨니 後日驟晴者는 燥金入候라 厥陰當折이오 太陰當伸이니 明日氣運皆順이라 是以知其必雨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沈括은 運氣의 이치로 일년의 기후상황을 대략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 아울러 단기간의 날씨 변화를 분석하는데도 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運氣이론을 가까운 기간의 날씨 예보방면에 사용한 흥미로운 시험이었으며, 運氣學說을 긍정하고 운용한 것이었다¹⁰⁾.

汪機는 그의 저서인 《運氣易覽·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運氣一書는 古人啓其端이라 □□□機之士는 豈可徒泥其法 而不求其法外之遺耶아 如冬有非時之溫이오 夏有非時之寒이오 春有非時之燥이오 秋有非時之熱이니 此四時不正之氣 亦能病人也라 又況百里之內에 晴雨不同이오 千里之邦에 寒暖이 各異라 此方土之候 各有不齊라 所生之

病도 多隨土著어늘 烏可皆以運氣相比例哉아 務須隨機達變이오 因時識宜라야 庶得古人未發之旨 而能盡其不言之妙也리라 奈何程德齋 馬宗素等은 妄謂某人生于某日이던 病于某經이니 用某藥이오 某日엔 當汗痧오 某日엔 當危殆라하야 悖亂經旨와 愚惑醫流 莫此爲甚이라 后人이 因視經爲繁文하야 置之而弗用者 有也라 又有讀其書하고 玩其理에 茫然無入手處하야 遂乃奔去而莫之省者 有也라 是以世醫罕有能解其意者焉이라 (汪機 運氣易覽·序)¹¹⁾

이 原文의 내용은 “務須隨機達變이오 因時識宜라야 庶得古人未發之旨 而能盡其不言之妙也리라”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運氣學說의 기계적인 응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程氏와 馬氏와 같이 生年月日에 따른 治病의 방법이 後學들이 運氣學說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論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운기학설을 잘 이해하여 연구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汪機는 字가 省之이고 號는 石山居士로서 安徽祁門人이며 明 正德嘉靖間의 名醫이다. 그가 著述한 《運氣易覽》은 三卷으로 되어 있는데, 論, 圖, 歌訣이 있다. 論은 그 이치를 충분히 밝혔고, 圖는 요점을 나타내었으며, 歌訣은 암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言語가 通俗의이고 깊이가 있으면서도 쉬워서 初學者들에게 비교적 좋은 저작이다. 이 책의 특징은 대강 세가지로 나뉜다¹²⁾.

첫째로 運氣에 대한 태도가 정확하다는 것이다. 《運氣易覽》의 첫머리에 “學五運六氣綱領”을 게재하여 朱丹溪, 楊太受가 論한 것을 인용하여 醫學을 배우는 자들은 “須先識病機하고 知變化하야 論人形而處治”하고난 然後에 運氣를

11) 任應秋, 上揭書, p. 111.

12) 王琦, 上揭書, p. 265.

10) 王琦, 上揭書, pp. 230 -231.

배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五運六氣는 須每日候之하여 記其風雨晦明 而病者有應時作이라”라고 주장하였다. 馬宗素, 程德齋와 같이 運氣學을 기계적으로 운용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運氣說”篇中에서 作者는 자신의 五運六氣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假如太角之化는 爲啓拆而變爲摧라 이오 太徵之化는 爲暄燠而變爲炎烈이라 正化之爲變者也라 小角엔 木氣不足하여 清勝而熱復이라 小徵엔 火氣不足하여 寒勝而雨復이라 邪化之爲復者 | 然也라 寒勝而爲陽焰이 是爲火鬱이오 熱甚而爲凄清이 是爲金鬱이니 抑而不伸者 | 然也라 水鬱而發則爲水雹오 土鬱之發則爲飄驟이니 鬱而怒起者 | 然也라 風淫所勝則克太陰하고 熱淫所勝則克陽明하니 凌其所勝者 | 然也라 相火之下엔 水氣承之하고 濕土之下엔 風氣承之하니 極則有反者 | 然也라 然摧拉之變에 不應普天이 悉皆大風이오 炎烈之에 變不應薄海 | 悉皆燔灼이오 清氣之勝에 不應宇宙 | 無不明潔이오 雨氣之復에 不應山澤이 無不蒸溽이라 鬱也 發也 淫也 承也에 其理 | 皆然이라 凡此者는 其應이 非有候오 其至 | 非有期니 是以可知 而不可必也라 其應이 非有候 則有不時 而應者矣오 其至 | 非有時 則有卒然而至者矣라 是故로 千里之遠에 其變이 相似者 | 有之오 百里之近에 其變이 不同者 | 亦有之라 卽其時 當其處 隨其變 而占焉이면 則吉凶을 可知리라”¹³⁾

이 또한 運氣의 이치로 앞일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기필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 때와 장소와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作者는 ‘論六病一節中’에서 運氣와 疾病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명확한 論述을 하였는데, 作者는 이르기를 “按經旨 則淫勝鬱復과 主客太少 | 皆至其疾 則邪之中人도 有

淺深矣라 又在人稟受衝冒(當作冒)畏避而矣라”라고 하였다. 이는 곧 비록 內經運氣諸篇이 淫勝, 鬱復, 主客太少가 모두 病이 되지만, 동시에 사람의 稟賦, 外邪에 대한 衝冒(邪氣와의 만남), 畏避(外邪를 피함)와도 유관함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또 이르기를 “若起居調養而能避邪安正이면 無橫夭矣라”라고 하였고, “雖然氣運交相臨遇이나 相得則和오 不相得則病이라 或瘟疫時氣에 一州一縣이 無問大小하고 皆病者는 斯固氣運自然이라 若我之眞元氣實하고 起居有時하고 動作無相衝冒하면 縱使瘟疫之作이 亦微리니 是故聖人有養生修真之術也니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運氣를 致病의 外界因素로만 대하였으며 運氣와 疾病의 밀접한 관계를 긍정하였으나, 유일한 決定因素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¹⁴⁾.

두번째로 作者는 五運六氣를 一年一時에 局限해서는 안되고 몇백 몇천년사이 運氣의 作用과 規則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책의 “論五天五運之氣”一節中에서 작자가 지적하기를 “一說自開辟來에 五運이 稟承하고 元會 | 運世라 自有氣數하니 天地萬物이 所不能逃라 近世는 當是土運이라 是以人無疾而亦瘵이라 此與勝國時多熱이 不同하니(勝國時火運) 如俗稱楊梅瘡은 自南行北이라 人物雷同하야 土濕生梅하니 當曰梅瘡이라 讀醫書五運八氣(當爲六氣) 南北二政에 豈獨止于一年一時 而煩忘世運會元之統耶리오”라고 하였다. 이 議論은 실제로 後世에 大司天理論의 발단이 되었다. 이른바 世運會元은 三十年이 一世이고 十二世가 一運이며 三十運이 一會이고 十二會가 一元이다. 뜻은 五運六氣의 이치가 一年一時中에만 작용하지 않고 百千 萬年사이에 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開國初에 火運이면 그 사람들은 熱病이 많은데 작자의 세상에서는 이미 土運이었으므로 梅瘡之病이 많고 사람이 병을 앓지 않더라도 瘵

13) 王琦, 上揭書, pp. 265 - 266.

14) 王琦, 上揭書, pp. 265 - 266.

이 많았다는 것이다¹⁵⁾.

세번째로 임상응용에 주의하는 것이다. 이 책은 작자가 運氣理論을 운용하여 臨證을 지도한 實例가 네곳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다.

① “人旅寓北方하고 夏秋에 久雨라 天行咳嗽頭痛하니 用益元散 姜葱湯調服하니 應手效라 日發數十斤이라 此蓋甲己土運에 濕令痰壅肺氣上竅니 但泄膀胱下竅而已오 不在咳嗽例也라”

② “戊年에 楚地春瘟하야 人不相弔라 予以五瘟丹投泉水하야 率童子分給하니 日起數百人이라 五瘟丹은 乙庚年엔 黃芩이 爲君이오 丁壬엔 山梔 爲君이오 丙辛엔 黃柏이 爲君이오 戊癸엔 黃連이 爲君이오 甲己엔 甘草稍 爲君이라 爲君者는 多一倍也라 餘四味는 與香附紫蘇爲臣者니 減半也라 七味生用 未用하고 大黃三倍를 煎濃湯去渣熬膏和丸하야 如鷄子大하고 朱砂雄黃等分爲衣하고 貼金箔이라 每用一丸을 取泉水浸하야 七碗을 可服七人이라”

③ “丹溪 曰 小兒痘에 陳文中이 用木香異功散하니 溫熱之藥이 多라 因立方之時 乃值運氣寒水司天 在泉하고 時令又值嚴冬大寒하야 爲陰寒氣鬱退하야 瘡不紅綻이라 故用辛熱之劑하야 發之라 今人不分時令寒熱하고 一概施治니 誤人多矣라”

④ “一人年四十五에 平生瘦弱血少러라 值庚子年 歲金太過하고 至秋深燥金用事하야 久晴不雨하니 得燥症하야 皮膚拆裂 手足枯燥 搔之屑起 出血痛楚 十指甲厚 反而莫能搔痒러라 予制一方 하니 名生血潤膚膏라 藥用 歸 芪 生地 天麥二門 冬 五味 淨芩 枯蕪仁 桃仁泥 酒紅花 升麻을 煎服十數貼하니 其病如脫이라 大便結燥에 加麻仁 郁李仁하니 後治十數人이 皆驗이로다”

以上的 네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歲氣 歲運을 결합하여 病情을 분석하여 方藥을 加減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氣運의

상황에 따라 病을 치료한 비교적 早期의 病案이다¹⁶⁾.

虞搏은 《醫學正傳·醫學或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或問 鰲峰熊氏 纂集《運氣全書》하고 及撰爲《傷寒鈐法》하야 以病者之所生年月日時로 合得病之日期하고 推算五運六氣와 與傷寒六經證候 無不吻合하니 謂某日엔 當得某經이오 某經엔 當用某藥 而以張仲景一百一十有三方으로 按法施治하니 如太陽無汗엔 麻黃湯이오 有汗엔 桂枝湯之類 使後學能推此法하야 不須問證察脈하고 但推算病在此經하야 卽用此經之藥하니 實爲醫家之捷徑妙訣也라 吾子可不祖述乎아 曰 此馬宗素無稽之術 而以世之生靈爲戲玩耳라 竊謂上古聖人컨대 仰觀天文하시고 俯察地理하사 以十干配而爲五運하시고 以十二支合而爲六氣하시니라 天은 以六方寓之하고 歲는 以六氣紀之하니 以天之六氣 加臨于歲之六節라 五行勝復盈虧之理 無有不驗하니 傳曰 天之高也와 星辰之遠也에 苟求其故하면 千歲之日至 可坐而致也라 하니라 今草芥野人 而以人之年命으로 合病日而爲運氣鈐法하야 取仲景之方以治之면 是蓋士師移情而就法也니 殺人이 多矣로다 知理君子는 幸勿蹈其復轍云하노라(虞搏 醫學正傳 醫學或問)¹⁷⁾

이는 上古로부터 내려오는 運氣學說은 聖人이 天文과 地理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熊氏와 같이 환자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치료의 기준을 삼는다거나 병이든 날의 運氣를 가지고 傷寒傳經의 기준으로 삼아서 診脈이나 辨證도 없이 치

15) 王琦, 上揭書, pp. 266 - 267.

16) 王琦, 上揭書, p. 267.

17)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 19.

료에 임하는 식의 기계적인 활용은 불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虞搏은 馬宗素, 程德齋가 말한 運氣에 대하여 크게 반대하여 이르기를 “此馬宗素無稽之術 而以世之生靈爲戲玩耳라”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運氣學說에서 十干으로 五運에 配屬하고, 十二支로 六氣에 配屬하며, 勝復加臨에 대하여는 排斥하지 않았다. 虞搏은 歷代로 運氣를 否定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 문단의 議論을 보면 그가 비방한 사람은 馬宗素나 熊宗立 등의 사람이 즐겨 쓴 “鈐法”, “圖括定局立成”과 같은 類의 기계적으로 運氣를 응용하는 醫家들 뿐이다. 따라서 본 論考에서는 虞搏을 運氣學說을 찬성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 뒤의 사람인 萬全, 何璜, 何夢瑤 등이 비판했던 運氣도 모두 馬, 程의 運氣를 가리킨 것이다¹⁸⁾.

張介賓은 《類經·運氣類》十注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讀運氣者 當知天道有是理 不當曰理必如是也 自余有知以來 常以五六之義 逐氣推測 則彼此盈虛 十應七八 即有少不相符者 正屬井蛙之見 而見有未至耳 豈天道果不足憑耶 今有味者 初不知常變之道 與盛衰之理 故每鑿執經文 以害經意 徒欲以有限之年辰 概無窮之天道 隱微幽顯 是誠非易見 管測求全 亦甚矣 此外復有不明氣化 如馬宗素之流者 假仲景之名 而爲《傷寒鈐法》等書 用運氣之更遷 擬主病之方治 拘滯不通 誠然謬矣 然又有一等偏執 已見 不信運氣者 每謂運氣之學 何益于醫 且云疾病相加 豈可依運氣以施治乎 非切要也 余喻之曰 若所云者 則似真運氣 不必求 而運氣之

18) 王琦, 上揭書, pp. 258 - 259.

道 豈易言哉 凡歲氣之流行 卽安危之關 或疫氣通行 而一方皆病 風溫 或清寒傷臟 則一時皆犯 瀉利 或痘疹盛行 而多凶多吉 期各不同 或疔毒遍生 而是陽是陰 每從其類 或氣急咳嗽 一鄉竝興 或筋骨疼痛 人皆道苦 或時下 多有中風 或前此 盛作痰火 諸如此類 以衆人而患同病 謂非運氣之使然歟 第運氣之顯而明者 時或盛行 猶爲易見 至其精微 則人多陰受 而識者爲難 夫人殊稟賦 令易寒暄 利害不侔 氣交使然 故凡以太陰之人 而遇流行之氣 以太陰之人 而逢赫曦之紀 強者是 有制 弱者是 遇扶 氣得其平 則何病之有 或以強陽 遇火 則炎烈 生矣 陰寒 遇水 則冰霜 及矣 天有天符 歲有歲會 人得無人和乎 能先覺豫防者 上智也 能因幾辨理者 明醫也 既不能知 而且云 烏有者是 下愚也 然則運氣之要與不要 固不必辨 獨慨乎知運氣者之難 其人耳 由此言之 則鑿執者 本非智士 而不諭者 又豈良材 二者 病則一般 彼達人之見 自所不然 故善察運氣者 必當順天以察運 因變以求氣 故杜預之言 曰 治曆者 當順天以求合 非爲合以驗天 知乎此 則可以言曆矣 而運氣之道 亦然 既得其義 則勝復盛衰 理可窺也 隨其機而應其用 其有不合乎道者 未之有也 張介賓 《類經·運氣類》十注云¹⁹⁾

이상의 내용은 “鑿執者 本非智士 而不諭者 又豈良材리오”라는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運氣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解釋하여 기계적으로 응용하고자 하는 것도 잘못이고 運氣의 이치를 필요없는 것으로 보아 전염병이나 계절에 따른 응용을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된 것

19) 任應秋, 上揭書, pp. 111 - 113.

으로 運氣學說의 올바른 응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張景岳은 이름이 介賓이며 字는 會卿으로 浙江山陰人이다. 生卒年은 萬曆 崇禎年間(1563~1640년)이다. 醫學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象數, 星緯, 律呂의 學問에도 통하였다. 費時四十年에 《類經》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黃帝內經》을 分門別類하여 篇에 따라 註釋한 것이다. 運氣에 대하여는 運氣類를 만들어 運氣七篇大論은 原文에 대하여 註釋하였는데, 매우 깊었으며 지금까지도 運氣를 講述하는 자들이 높이 받고 있다. 運氣中에서 寓義觀深하고 말로 그 뜻을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곳에 대하여 별도로 《類經圖翼》을 찬하여 설명하였다. 圖翼은 十一卷으로 되었는데, 앞의 二卷은 運氣를 논하고 뒤에는 經絡을 논하였다. 運氣部分中에서는 運氣에서 언급하는 陰陽, 五行, 二十四氣, 二十八宿, 斗綱, 中星, 歲差, 氣數, 主運, 客運, 主氣客氣, 南北政 등등을 일일이 상세하게 해석하였는데 독자적 견해가 많았다. 陰陽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易理와 程朱理學의 太極圖說을 인용하였으므로 첫머리에 太極圖說, 陰陽體象이라 표시하였고, 《類經附翼》中에서는 “醫易義”를 지어 醫理와 易理를 결합하였는데 상당히 깊은 것이 있었다²⁰⁾.

吳瑭은 《醫醫病書·氣運論》 중의 “精通運氣有先知之妙”라는 논술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五運六氣之理는 天地運行自然之道니 宋人 | 疑爲僞書者는 蓋未體驗也라 《內經》論氣運諸篇은 當與《大易》, 《月令》을 參看하니 與《大易》로 相爲表裏者也라 統言之면 天地陰陽은 一氣之流行也오 分言之 則有兩儀오 四時 五

行 六氣 七政 八風 | 相爲流行하고 對代制化하여 以化生萬物者也라 在天하얀 原未傷人이로대 在人之氣體有編하얀 觸其相克之氣而病이라 如 陽虛者는 易傷濕燥寒이오 陰虛者는 易傷風火暑也라 精通氣運之理면 有先知之妙니 時時體驗 其氣之已至 未至 太過 不及하야 何者 | 爲勝氣며 何者 | 爲中氣며 何者 | 爲復氣며 何者 | 爲化氣오하고 再用有者求之하고 無者求之하고 微者責之하고 盛者責之之功이 臨證自有確的이리라 今人은 概不之講하고 焚焚處方 張冠李載하니 民命何堪이리오” (吳瑭 醫醫病書 氣運論. 精通運氣有先知之妙)²¹⁾

이는 運氣에 정통하면 臨床에 있어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은 運氣와 환자의 체질이 상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醫師가 평소에 氣運의 변화를 읽어내는 훈련을 통하여 그 내용을 질병의 예방에 응용해야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運氣學說에 대한 中道的 견해

이는 運氣의 이치는 인정할 수 있지만 治病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黃承昊(字履素 號暗齋)와 馮兆張(字楚瞻)과 같은 醫家와 徐大椿과 같이 司天在泉에 근거하여 治病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여 治病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醫家로 나눌 수 있다.

이들과 沈括, 張介賓 등과의 차이는 沈張二氏는 運氣學說을 완전히 신봉하고 단지 그 응용을

20) 王琦, 上揭書, p. 268.

21) 王新華, 上揭書, p. 888.

기제적으로 하는 것만을 반대하였고, 이들은 그 이치는 인정하지만 완전히 신봉하지를 못하여 臨床에의 응용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다르다.

黃承景은 《折肱漫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治病不可拘執于五運六氣라

五運六氣之說은 《內經》에 詳言之하고 後賢 疏注 | 更詳이라 但至于今 而按之컨대 天時 民病이 多不相合이라 豈古今氣運不相同耶리오 近者에 武林徐季孺刻有《運氣商》에 言之 | 尤悉이오 其于間氣闡發은 極精이라 乃按之 天時 民病하니 亦多不合也라 是不可解라 竊謂治病者 | 得是說 而存之하야 用藥時에 稍有照顧하니 如相火司天 又兼行火運하면 則用藥에 不可過熱이니 違“熱無犯熱”之禁이라 于寒亦然하니 如相火司天 而行水運하면 卽用熱도 亦無妨이라 或行金 土運도 亦似可不拘라 若膠柱鼓瑟 而斤斤株守면 恐反 多窒礙而致誤라 矧原有舍時從症之訓하니 則不可違證而從時也 | 明矣로다 經云 必先歲氣하야 無伐天和하라하니 二語 | 須認明白이라 如先哲 熱無犯熱 寒無犯寒之說은 則是夏不可用熱藥이오 冬不可用寒藥이며 春不可助木이오 秋不可助金矣로다 又讀《本草綱目》하니 李時珍之言에 曰 春宜可辛溫之藥하야 以順春升之氣오 夏宜可辛熱之藥하야 以順夏浮之氣이오 秋冬도 推此라 하니 以上二說이 相背하니 當何適從고 獨不觀이라 經又云乎 升降浮沈則順之하고 寒熱溫涼則逆之라하니 斯二言이 可爲定論矣로다 春宜順春升之氣하야 以升之하고 秋宜順秋降之氣하야 以降之하고 至于夏浮 冬沈에 非謂必以辛熱 苦寒으로 浮之 沈之也라 薄荷 香薷等이 非浮劑耶아 地黃 牛膝等이 非沈劑耶아 此四時不可以一例論也라 所謂逆之者는 寒則熱之 熱則寒之 溫則涼之 涼則

溫之也라 歲與升降浮沈을 例論乎아 經又云 春省酸甘以助脾오 夏省苦增辛以助肺 云云은 春則木旺土虧하니 故欲抑木以助土오 夏則火旺金衰하니 故欲抑火以助金이라 則逆之說이 更了然矣라 至于順之說하얀 亦概論用藥之理 | 宜然이라 又有當舍時從證者하니 不可泥也라 升之不已 | 爲浮니 浮之義 | 何居오 如陽氣外浮하니 夏月多汗은 理之常也라 若居處太涼 飲食過冷 或過服斂藥하야 使汗不泄하면 秋必生痰이라 此其一端이니 可類推矣라 故謂夏月엔 伏陰이 在內하니 不宜寒冷이 固是라 然夏至엔 一陰生하니 正宜保護微陰이니 其可輕服桂附等藥以銷之乎아 則夏令宜辛熱之藥은 其說非也라 降之不已 | 爲沈이니 沈之義 | 何居오 如陽氣潛藏하면 神氣宜斂이라 若內外煩勞 精氣多泄 或服升散之藥하야 使氣耗散하면 春必生疾也라 故謂冬月엔 陽藏于密하니 不宜又服熱藥이 固是라 然冬至엔 一陽生하니 正宜保護微陽이니 豈可輕服連柏等藥以傷之乎아 則冬令宜苦寒之藥은 其說非也라 知此 則“無伐天和”之奧義를 可知矣로다(黃承景 《折肱漫錄》)²²⁾

上文은 五運六氣學說은 《內經》에 언급되어 있고 後賢들의 疏注가 자세하므로 오묘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臨床에 있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理論을 질병 치료에 응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馮兆張은 《錦囊秘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五運有太過 有不及하니 太過者는 甲丙戊庚壬의 五陽干也라 不及者는 乙丁己辛癸의 五陰干也라 王冰이 曰 蒼天布氣는 尙不越乎五行이니 人在氣中이 豈不應乎天道리오 故隨氣運 陰陽之

22) 王新華, 上揭書. pp. 890 -892.

盛衰는 理之自然也라 經曰 不知年之所加와 氣之盛衰와 虛實之所起면 不可以爲工이라하니라 雖然 運氣之理도 亦不可泥니 又有內外兩因하니 隨時感觸이라 雖當太過之運에 亦有不足之時며 不及之運에 亦多有餘之患하니 倘專泥運氣면 能無實實虛虛하나 損不足而益有餘乎아 況歲氣之在天地는 亦有反常之時라 故冬有非常之溫이며 夏有非時之寒이며 春有非時之燥며 秋有非時之暖이니 犯之者는 病이라 又如春氣는 西行하고 秋氣는 東行하며 夏氣는 北行하며 冬氣는 南行하며 卑下之地엔 春氣常行이어 高阜之境엔 冬氣常在이라 天不足西北 而多風이오 地不滿東南 而多濕이라 百里之內에도 晴雨不同이오 千里之外에도 寒暄各別하니 方主不齊 而病亦因之라 雖然西北固厚나 安能人人이 皆實이리오 東南固薄이나 安能人人이 皆虛이리오 且如久旱則亢陽이오 久雨則亢陰이라 陽盛人은 耐秋冬而不耐春夏오 喜陰寒而惡陽暄이라 陰盛人은 耐春夏而不耐秋冬이오 喜晴明而惡陰雨이니 此乃天氣變常이오 人稟各異니 又爲法外之遺也라

善言運氣者는 隨機觀變이라야 方得古人未發之旨라 繆仲淳이 曰..... 故宜知之者는 以明天氣歲氣 | 立法之常也일새오 不可執之者는 以處天氣歲氣 | 法外之變也일새라 天有寒暄 早晚이不同하고 人有盛衰 時刻이 迥別하니 豈可以干支司歲一定之數로 以定無窮時刻盛衰之變哉아 (馮兆張 《錦囊秘錄》)²³⁾

이상은 “以明天氣歲氣 | 立法之常也일새오 不可執之者는 以處天氣歲氣 | 法外之變也일새라”라는 논술에서 알수 있듯이 運氣學說은 天地의 氣運이 운행하는 大法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처신하는데 있어서는 기계적인 적용이 불가하고 때에 따라 알맞

은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의 氣象은 항상된 理致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徐大椿은 司天在泉에 근거하여 治病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여 治病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司天運氣論

彼所謂司天運氣者는 以爲何氣司天이면 則是 年에 民當何病이라 假如厥陰司天엔 風氣主之하니 則是年之病엔 皆當作風治라 此等議論은 所謂 耳食也라 蓋司天運氣之說은 黃帝는 不遇言天人 相應之理어늘 如此其應驗은 先候于脈이라 凡遇 少陰司天 則兩手寸口不應이오 厥陰司天 則右寸 不應이오 太陰司天 則左寸不應이오 若在泉 則尺 脈不應이 亦如之라 若脈不當其位 則病相反者는 死라 此診脈之一法也라 至于病 則必觀是年歲氣 | 勝與不勝이라 如厥陰司天엔 風淫所勝이니 民 病心痛脅滿等證이라 倘是年에 風淫雖勝이라도 而民另生他病이면 則不得亦指爲風淫之病也라 若是年風淫不勝 則又不當從風治矣라 經又云相 火之下엔 水氣乘之오 水位之下엔 火氣承之이라 하니 五氣之勝이 皆然이라 此乃亢則害承乃制之 理라 即便果勝이면 亦有相剋者 | 承之하니 更與 司天之氣로 相反矣라 又云 初氣終三氣는 天氣主 之니 勝之當也오 四氣盡終氣는 地氣主之니 復之 常也라 有勝則復이오 無勝則否하니 則歲半以前 은 屬司天이오 歲半以後는 又屬在泉이라 其中又有 勝不勝之殊하니 其病이 更無定矣라 又云厥陰 司天이면 左少陰 右太陽이니 謂之左間右間이라 하니 六氣 | 皆有左右間이라 每間主六十日이니 是一歲之中에 復有六氣循環이 作主矣라 其外又有 南政北政之反其位오 天符歲會三合之不齊오

23) 王新華, 上揭書, p. 890.

太過不及之異氣니 欲辨明分晰이면 終年不能盡其蘊이라 當時聖人은 不過言天地之氣 運行旋轉이 如此耳라 至于人之得病 則其能一一與之盡合하야 一歲之中에 不許有一人生他病乎아 故內經治歲氣勝復에 亦不分所以得病之因하니라 總之見病治病하니 如風淫于內 則治以辛涼이라 六氣 | 皆有簡便易守之法이라 又云治諸勝復하니 寒者熱之 熱者寒之 溫者清之 清者溫之하야 無間其數하야 以平爲期라 何等劃一이리오 凡運氣之道는 言其深者면 聖人도 有所不能知오 及施之實用 則平正通達하야 人人易曉하야 但不若今之醫者所云 何氣司天 則生何病하니 正與內經圓機活法相背耳라.(徐大椿 醫學源流論)²⁴⁾

이는 “凡運氣之道는 言其深者면 聖人도 有所不能知오 及施之實用 則平正通達하야 人人易曉하야 但不若今之醫者所云 何氣司天 則生何病하니 正與內經圓機活法相背耳라.”라는 論述에서 알 수 있듯이 運氣學說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內經》의 圓機活法한 것과 같이 응용을 해나가야 하며 확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을 止揚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雍正十年 崑山에 瘟疫이 大行이러라 因上年海嘯하야 近海流民數萬이 皆死於崑이오 埋之城下하야 至夏暑蒸尸氣하야 觸之成病이라 死者 | 數千人이라 汪翁天成이 亦染此證이어늘 身熱神昏 悶亂煩躁 脈數 無定이라 余以清涼芳烈 如鮮菖蒲 澤蘭葉 薄荷 青蒿 蘆根 茅根 等藥으로 兼用 辟邪解毒丸散 進之하니 漸知人事라 因自述其昏暈時 所歷之境이라 雖言之鑿鑿이나 終虛妄不足載也라 余始至岷時엔 懼應酬 不令人知이나 會翁已愈하니 余將歸矣라 不妨施濟하야 語出而求治者二十七家하니 檢其所服이 皆香燥升提之藥

24)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88. pp.93 -94.

이니 與證相反이라 余仍用前法療之라 歸後有葉生爲記姓氏 | 愈者二十四오 死者止三人이니 又皆爲他醫所誤者라 因知死者皆枉이라 凡治病不可不知運氣之轉移니 去歲因水濕得病에 濕甚之極엔 必兼燥化라 內經言之 | 甚明이라 況因證用藥엔 變化隨機라 豈可執定往年所治祛風逐濕之方 而以治溫邪燥火之證耶아(徐洄溪 醫案 瘟疫)²⁵⁾

이는 徐氏가 雍正年間に 瘟疫을 치료한 처럼 레를 가지고 運氣學說을 잘 응용하여 질병의 轉變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다. 무릇 治療를 할 때는 運氣의 轉移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작년에 水濕으로 인한 病이 많았다면 濕이 심하기를 極하면 반드시 燥化를 겸한다고 하였다. 이는 《內經》의 亢害承制理論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內經》의 司天在泉理論을 응용한 것은 아니다.

또 王履(字安道)는 運氣七篇의 내용이 비록 素問의 원문이 아니고 후세에 추가한 것이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醫學에 전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新校正에 참여한 林億, 高保衡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王履(安道)는 그가 저술한 《醫經溯回集》에서 運氣七篇을 素問에서 제외시키는 관점을 취하였다. “四氣所傷”篇中에서 이르기를 “或問余曰 五運六氣七篇所敘燥之爲病甚多何哉 余曰運氣七篇與素問諸篇自是兩書 作于二人之手 其立意各有所主 不可混言 王冰以爲七篇參入素問之中 本非素問原文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王履는 運氣와 素問原文을 나누었으며 運氣理論을 否定하지는 않았다. 그는 同書 “亢則害承乃制論”, “五鬱論”

25) 姚若琴 主編, 宋元明清名醫類案, 上海, 上海書店, 1998. pp.16 -17.

등편중에서 《六微旨大論》, 《至真要大論》중의 많은 이론에 대하여 모두 明白하고 철저한 解釋을 하였고, 六節分治, 地理相應, 亢害承制, 五運鬱極而發 등의 理論을 肯定하였다²⁶⁾.

予讀《內經·六微旨大論》하니 至于亢則害承乃制하얀 喟然嘆曰 至矣哉로다 其造化之樞紐乎 인저하니라 王太仆이 發之于前하고 劉河間이 闡之于后하니 聖人之蘊에 殆未遺矣라 然學者尙不能釋然하고 得不猶有未悉之旨也歟인저하니라 謹按《內經》하니 帝曰 善 愿聞地理之應六節氣位는 何如오 岐伯曰 顯明之右 君火之位也라 君火之右에 退行一步하면 相火治之라 復行一步하면 土氣治之라 復行一步하면 金氣治之라 復行一步하면 水氣治之라 復行一步하면 木氣治之라 復行一步하면 君火治之니이다 相火之下엔 水氣承之라 水位之下엔 土氣承之라 土位之下엔 風氣承之라 風位之下엔 金氣承之라 金位之下엔 火氣承之라 君火之下엔 音精承之니이다 帝曰 何也오 岐伯曰 亢則害오 承乃制하니 制生則化하야 外列盛衰라 害則敗亂하야 生化大病이라 嘗觀夫陰陽五行之在天地間에도 高者는 抑之오 下者는 舉之오 强者는 折之오 弱者는 濟之하니 盖莫或使然而自不能不然也니이다 不如是 則高者 | 愈高하고 下者 | 愈下하고 强者 | 愈强하고 弱者 | 愈弱 而乖亂之政이 日以極矣라니 天地其能位乎아 雖然 高也 下也 弱與强에도 亦莫或使然而自不能不然也니이다 故易也者는 造化之不可常也오 惟其不可常하니 故神化莫能以測이라 莫測하니 故不息也라 可常則息矣라 亢則害承乃制者는 其莫或使然而自不能不然者歟인저 夫太仆河間已發揮者니 茲不贅及이라 其未悉之旨는 請推而陳之하노라 (王履 醫經溯洄集)²⁷⁾

26) 王琦, 上揭書, p. 258.

27) 王履, 醫經溯洄集,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p. 2 - 3.

上文은 運氣學說 중 亢害承制論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運氣學說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造化의 항상되지 않은 것과 또 그에 따른 神化의 變化莫測한 것을 중요시하였으니 이 또한 運氣學說의 기계적인 응용보다는 變化莫測한 造化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徐靈胎, 王履 두 醫家は 運氣學說 중 亢害承制論을 중요시하여 연구하기는 하였지만 運氣學說 중 다른 理論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봉하거나 임상에의 응용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았다.

3. 運氣學說에 대한 부정적 견해

運氣를 非難하는 者는 종종 運氣七篇文章을 否定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元末明初에도 이러한 論이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王履나 虞搏과 같은 醫家들을 運氣學說을 비난한 醫家로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論考에서는 그들의 原文을 考察한 결과 運氣學說 자체나 전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運氣學說을 반대한 醫家에서 제외시켰다.

진정으로 運氣理論을 부정한 사람은 明代의 繆希雍과 清代의 張倬이 두드러진다.

繆希雍의 字는 仲淳으로 明·萬曆時의 사람이다. 《神農本草經疏》를 지었으며 주로 《神農本草經》의 文字藥性에 대하여 註解하고 闡述하였다. 이 책은 運氣와 醫藥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運氣의 基源終止, 당시 사람들이 運用할 때의 弊端 및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가 저술한 《本草經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原夫五運六氣는 其起源于漢魏之後乎인저 何者오 張仲景은 漢末人也어늘 其書不載也라 華元化는 三國人也어늘 其書亦不載也라 前則越人無其文이오 後之叔和鮮其說이라 予是以知其爲後世所撰이오 無益于治療而有誤乎來學者니 宜深辨之라 予見今之醫師는 學無本源하고 不明所自하고 侈口而談하야 莫不勤云五運六氣라 將以施之治病하고 譬之指算法之精微하야 謂事物之實하니 有豈不誤哉아 殊不知五運六氣者는 虛位也라 歲有是氣至則算이오 無是氣則不算이니 既無其氣어늘 焉得有其藥乎아 一言可竟이라 昔人謂不明五運六氣면 檢遍方書에 何濟者리오하니 正指後人愚蒙하야 不明五運六氣之所以 而誤于方冊所載하야 依而用之하니 動輒成過 則雖檢遍方書나 亦何益哉리오 其必先歲氣者는 譬夫此年忽多淫雨면 民病多濕이니 藥宜類用二朮하야 若濕以燥之라 佐以風藥하니 加防風 羌活 升麻 葛根之屬하야 風能勝濕이라 故此必先歲氣之謂也라 其云勿伐天和者는 卽春夏禁用麻黃 桂枝오 秋冬禁用石膏 知母 芍連니 苟藥之에 是其源所當察也라 寒氣在上則陽伏地中하니 故土上凜烈 而井泉溫暖이라 以驗人身하면 則外感風寒則內鬱爲熱也라 是其情之有可例也라 此言運氣者之大指니 取其大者오 略其煩碎하야 棄其紕繆 而時時體驗于人身이 是在善讀書者耳라”²⁸⁾

이 문장을 분석하면 繆氏의 運氣에 대한 관점은 네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運氣학설은 漢魏보다 뒤에 나온 것이다.
- ② 治療에 無益하고 學問을 그르친다.
- ③ “歲有是氣之則算이오 無是氣之則不算이라”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運氣는 단지 型式적인 規律일 뿐이고 實際로 氣候狀況을 推算할

지의 與否는 該해의 기후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즉 運氣의 규칙에 따라 氣候가 變해 준다면 계산을 하고 맞지 않는다면 計算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④ 運氣에 대한 정확한 태도는 마땅히 “取其大者하고 略其煩碎라”하고 “棄其紕繆而時時體驗于人身이라”라고 하여 그 大法만을 취하고 變잡한 條目은 무시할 것이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때때로 사람의 몸에 체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運氣를 否定하는데 노력한 사람으로는 清代의 張倬을 들 수 있다. 張倬은 字가 飛疇이며 清代 康乾間에 名醫 張璐의 두번째 아들이다. 그는 《傷寒兼證析義》에서 運氣를 批評하여 이 르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諺曰 不讀五運六氣면 檢遍方書에 何濟리오 하니 所以稍涉醫理者 動以司運으로 爲務라 曷知天元紀等篇이 本非素問原文이오 王氏 取陰陽大論하야 補入經中이어늘 後世에 以爲古聖格言하야 孰敢非之리오 其實은 無關於醫道也라 況論中明言은 時有常位 而氣無必然이라 猶詢論者는 不過窮究其理而已니 縱使勝復有常 而政分南北이나 四方有高下之殊오 四序有非時之化오 百步之內에도 晴雨不同하며 千里之外에도 寒暄各異하니 豈可以一定之法 而測非常之變也리오 (張倬, 傷寒兼證析義 運氣)²⁹⁾

이는 運氣七篇이 《素問》의 原文이 아니고 王冰이 補入한 것이라 것과 각 方位에 따라 氣運의 흐름을 획일적인 이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運氣學說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醫理에 정밀하지 못하면서 運氣를 말하는

28) 王琦, 上揭書, pp. 259 - 260.

29) 陳存仁, 皇漢醫學叢書,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p. 6.

者의 無知함을 비평한 것이고, 둘째는 七篇大論은 素問原文이 아니고, “無關於醫道”라고 인식한 것이며, 세번째는 四方의 高下가 다르고 百步千里가 달라 運氣가 서술하는 각종 規則性을 부정한 것이다.

繆張二氏의 논한 바는 하나는 “不明五運六氣之所以”, “有是氣則算無是氣則不算”이거나 혹은 “諄諄詳論者 不過窮究其理而已” 등등의 내용으로 運氣學說은 氣候變化의 所以然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거나 혹은 醫師가 그 이치를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그 所以然을 밝힐 수 없다거나 혹은 고정된 법칙으로 非常之變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運氣學說에 대해서 아직 깊이 연구할 수 없다는 정도였지 결코 運氣學說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직 근대의 陸彭年(字 淵雷), 陳無咎 등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陳無咎는 運氣七篇은 “學術之正宗”이 아니고 兩漢時代 陰陽의 讖緯學說이 유입된 僞書로 欺愚蒙하고 惑賢知한다고 가장 격렬히 비판하였다. 그 두 사람의 의견을 原文을 가지고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陸淵雷는 《生理補證·卷四》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六氣는 根本에 無理由하니 五運之根據 | 仍極薄弱이오 去六氣 | 一間耳라 夫考其書하면 則出于漢魏以后니 好古者는 無取焉이라 尋其理 則涉于渺茫之談이오 核實者도 亦無取焉이라 如是而謂五運六氣之不足信當廢除 則事之當然이오 絕非好作翻新之論矣라(陸淵雷 《生理補證》·卷四)³⁰⁾

이는 運氣學說 자체가 渺茫之談이고 核實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마땅히 廢除해야 할 것이라고 극렬하게 運氣學說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陳無咎는 《內經辨惑提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漢儒 | 說經에 謂有經이면 必有緯라하니 故董仲舒之治《春秋》와 夏侯勝之治《尚書》에 皆以陰陽五行으로 橫斷政治하고 創爲運氣元會之談이로대 而當時治醫者 | 遂將經緯之學으로 附會《內經》하니 不知《內經》之學陰陽五行은 是假定的이오 非肯定的이며 是代用的이오 非專用的이라 觀于《生氣通天論》之稱陽氣 衛氣와 與《厥論》所稱陽氣 陰氣 | 相對 | 不同하고 又如鄭康成用古說注《周官·疾醫》에 云 “肺氣熱하니 配火오 心氣次之하니 配土오 肝氣涼하니 配金이오 脾氣溫하니 配木이오 腎氣寒하니 配水라”하야늘 則與今說以五行配五藏에 稱心火 肝木 腎水 肺金 脾土者로 又別이라 可知本篇《天元紀大論》 以及《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等七篇은 所謂 “運氣證治 司天在泉”者라 都是兩漢陰陽家 | 沈迷于讖緯하야 恐嚇于災變하고 纂文造經하야 以張皇其學說也라(陳無咎, 內經辨惑提綱)³¹⁾

이는 運氣學說을 《內經》에 補入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內經》에서 인용한 陰陽五行說은

30)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210.

31) 陳無咎, 內經辨惑提綱,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p. 60.

다분히 가정적이며 대응적인 것으로 運氣學說이 陰陽五行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內經》에 補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이밖에 醫家は 아니지만 宋代의 程伊川과 朱子같은 儒學者들도 運氣學說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日本의 醫家인 丹波元簡도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原文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程子の 著書인 《程氏遺書》에는 다음과 같은 論述이 있다.

“觀素問文字氣象컨대 只是戰國時人作이라 謂之三墳書則非也라 道理 | 却總是想이니 當時亦須有來歷이나 其間에 只是氣運이 使不得이라 錯不錯을 未說하야 就使其法不錯하고 亦用不得除라 是堯舜時十日一風 五日一雨에 始用하야 得이라 且 如說潦旱하면 今年運氣 | 當潦어늘 然有河北潦 江南旱時라 此且做各有方氣不同이라 又却有一州一縣之中에도 潦旱不同者하니 怎生定得이리오(運氣論奧疏鈔 卷一 程子 程氏遺書 丁集十九)³²⁾

이는 《素問》을 戰國時代 사람이 지은 것으로 규정하고 三墳之書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으며 그 學說이 발생할 당시의 고증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점과 각 方位에 따른 획일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運氣學說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丹波元簡은 그의 著書인 《醫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運氣之宗은 昉于《素問》하고 見褚澄遺書라 褚는 南齊人이라 然則運氣之混于《素問》은 在于六朝以前乎인저 褚書는 盖蕭淵所依托이 得于古冢中云者라 乃欲托汲冢古書耳라 隋蕭吉作《五行大義》는 上自經傳이나 下至陰陽醫卜之書라 凡言涉五行者는 莫不罔羅蒐輯焉이라 特至五運六氣勝復加臨之義 則片言只字 無論及者니 其起于隋以後를 確乎可知矣라 而其說이 湊合緯醫二書所立이니 正是一家에 未知創于何人이라 豈所謂玄珠先生者乎아 但至王冰이 采而闡入《素問》篇內하야 其說이 始顯이나 然竟唐代에 猶未聞有言之者라 后及宋劉溫舒 沈括 楊子建輩 | 篤信之하야 精詣其理하야 各有所發明이라 而當時泗州楊吉老 | 嘗謂黃魯直曰 五運六氣에 視其歲而爲藥石하니 雖仲景도 猶病之也라하니 此言이 極是라 伊川朱子도 亦嘗論其淺近焉이라 (丹波元簡 醫剩)³³⁾

이는 運氣學說의 성립 과정에 의문을 품어 蕭吉, 王冰, 劉溫舒, 沈括, 楊子建으로 이어지는 運氣學說을 성립한 사람들이 사실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적당히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運氣學說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泗州楊吉老, 程伊川, 朱子 등 運氣學說을 신빙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 運氣學說을 완전히 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32)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 1665. pp. 30 -31.

33) 王新華, 上揭書, p. 884.

III. 結論

이상과 같이 運氣學說에 대한 諸家들의 의견을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運氣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는 馬蒔 등처럼 推崇하는 사람, 程德齊 등처럼 運氣學說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沈括 등처럼 변화를 잘 헤아려서 수시로 대처해야 한다는 세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그중에 沈氏와 같이 원활한 활용을 할 것을 주장하는 醫家가 가장 많다.
2. 運氣에 대해서 중도적인 견해를 가진 醫家들이 있는데 이는 運氣의 이치는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 임상에 응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한 경우로 黃承景, 馮兆張, 徐大椿과 같은 의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3. 運氣를 비난하는 경우는 運氣七篇의 문장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때문에 진정으로 運氣學說을 부정했다기 보다는 運氣學說의 기계적인 응용을 반대했거나 중도적인 운용을 주장한 王履나 虞搏과 같은 醫家들을 運氣學說을 반대한 醫家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4. 運氣學說을 반대한 醫家는 運氣變化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거나 혹은 醫師가 그 이치를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그 까닭을 밝힐 수 없다거나 혹은 고정된 법칙으로 非常之變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繆希雍이나 張倬과 같은 醫家가 있고 근대의 陸彭年, 陳無咎와 같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교보문고

參考文獻

- 1)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 2)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 3) 李挺,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78.
- 4) 王琦,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 5)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 6)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 7)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88.
- 8) 姚若琴 主編, 宋元明清名醫類案, 上海, 上海書店, 1998.
- 9) 王履, 醫經溯洄集,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 10) 陳存仁, 皇漢醫學叢書,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 11) 陳無咎, 內經辨惑提綱,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 12)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 1665.